

음악 분야

- 일시 : 2014. 12. 8(월) 14:00~18: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 1실
- 심의위원 : 최승한, 이민정, 김규태, 윤승현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음악분과 지원심의위원회는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4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62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2,166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사업 음악분야에는 총 8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2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엄선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삼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심의신청자(단체)의 현재 비평 활동과 전문지로서의 담론형성이 함께 진행 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례적인 학회지 성격을 갖거나, 상업용 잡지 성격을 갖는 책은 공모에서 배제하였다. 지난 2014년 심의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주최 측의 사업개선 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축소하였다.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비평 연구 활동과 신진비평가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음악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51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3건을 선정하였다. 주요 심의기준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과 '예술적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였다.

사업을 검토하면서 예년에 비해 다양하고 훌륭한 국제예술교류 사업들이 많이 신청되어 선정하는데 많은 고심과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부족한 지원속에서도 지속적인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단체가 예년에 비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실은 한국 음악계에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원자(지원단체)와 교류하는 해외 파트너 기관 모두가 예술적 역량과 국제적 인지도가 있고, 공연장소가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신청한 프로젝트의 예술성이 뛰어나며, 교류사업이 성사되었을 경우 기대효과와 영향력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논의를 한 결과 단순 개인 발표회 성격의 프로젝트, 교류대상국가 파트너 기관과의 사업예산 부담이 불균등하게 설정된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의 사업은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13개 사업이 선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음악계의 국제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음악분야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총 2건이 신청되었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사업의 목적은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계기 또는 거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획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금번 지원심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선정하지 못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음악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 지원사업은 총 1건이 신청되었다. 동 사업 목적은 우리 예술가의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것인데 신청된 사업의 경우 본격적인 창작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축제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와 토론이 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어서,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지 않았다.

음악분야 책임심의회위원 일동